

# 『廣韻』과의 비교를 통한 『慧苑音義』 반절하자 분류 및 특징 연구

- 山攝에서 咸攝까지를 중심으로

장재웅

(中央民族大學)

## 국문초록

본고의 작성목적은 『慧苑音義』 음운체계 분석의 기초 자료로의 활용과 『廣韻』 이외의 반절 자료의 발굴 및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慧苑音義』 반절하자를 『廣韻』과 비교하여 분류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분석해내었다. 첫째, 용자의 차이, 둘째, 피절자의 又음을 통한 주음, 셋째, 순음 성모의 개합구 혼란현상, 넷째 반절하자 혼절 현상. 특히 이 중 반절하자 혼절 현상은 음운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重韻의 병합현상, 4등 개음의 발생, 麻운과 歌운의 분화 시기 등에 대해 기존설과 차별되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주제어

『慧苑音義』, 反切下字, 『廣韻』, 攝, 韻類, 음운변화

## 1. 머리글

필자는 『中國學研究』 제29집에 “『慧苑音義』 운모체계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기 논문의 제목에 비록 ‘운모체계 연구’가 들어갔지만 내용은 『慧苑音義』 편서(684~704) 당시의 운모 특징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역사언어학에서 보는 운모체계 연구라 함은 운모 체계에 대한 특징 분석 뿐 아니라, 재구음의 추정 더 나아가서는 초분절 단위체계와 그것들의 운소적 요소까지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慧苑音義』 운모체계는 아직 완벽하게 분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절하자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국어 역사 음운론 연구에서 반절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표의문자인 한자의 특징으로 말소리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성모 체계 연구이든 운모체계 연구이든지 간에 모두 반절을 매개로 하여야 가능하며 반절음 체계를 기초로 하여 분석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의 연구는 『慧苑音義』 운모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본고에서 『慧苑音義』 반절하자를 분석해서 제시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중국어 역사 음운론 연구방법은 대부분이 역사 문헌 자료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 형태 음소의 변동에 그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단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음소변동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 연구방법의 관건은 새로운 문자 언어 자료의 발굴(특히 반절 자료)과 그것에 반영된 음운 특징에 대한 예외 없는 기술과 분석이다. 본고의 두 번째 작성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人文科學研究』 13.2에서 通攝에서 臻攝까지의 『慧苑音義』 반절하자 분류 및 특징을 연구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논문의 후속연구로서 山攝에서 咸攝까지의 반절하자의 분류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논문들에서 『慧苑音義』의 서지적 고찰과 그 가치, 연구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논의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한 채 반절하자의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고의 작성목적을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반절하자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간단히 요약·정리하였다.

## 2. 『慧苑音義』 반절하자 분석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절에서는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를 분류하였고 뒤 절에서는 반절하자에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 음운변화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 2.1. 『慧苑音義』 반절하자 분류

반절하자의 분류는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를 攝으로 나누고(山攝에서 咸攝까지), 이를 다시 『廣韻』 운목명에 따라 하위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폭을 줄이기 위해 『廣韻』의 운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고찰하며 일치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韻攝 아래에 그 운목명을 열거하고 일일이 분석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 2.1.1. 山攝<sup>1)</sup>

『慧苑音義』에서 緩운, 末운, 澗운, 黠운, 鑿운, 阮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山운, 産운, 欄운, 元운, 月운, 線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 (25-1)<sup>2)</sup> 寒운[-an]

① 丹(都寒切), 乾(古寒切)

② 幹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寒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寒운의 반절하자로서

1) 『廣韻』의 운류 분류와 재구음은 최영애(2000)에서 인용하였다.

2) 1-1에서 앞에 1은 『廣韻』의 운목 순서이고, 뒤에 1은 성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은 평성, 2는 상성, 3은 거성, 4는 입성이다.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寒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②는 『廣韻』에서 翰운으로 분류되는 幹자가 難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難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奴案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難자는 『慧苑音義』에서 寒운이 아닌 翰운으로 읽어야 된다.

(23-2) 𡗗운[-an]

- ① 𡗗(落旱切), 𡗗(多旱切)

이상은 『廣韻』에서 𡗗절자가 𡗗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𡗗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𡗗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8-1) 翰운[-an]

- ① 𡗗
- ② 翰(侯旱切), 幹(古案切)

이상은 『廣韻』에서 𡗗절자가 翰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翰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翰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翰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2-4) 𡗗운[-at]

- ① 沫

이상은 『廣韻』에서 𡗗절자가 𡗗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末운으로 분류되는 沫자가 撻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沫자와 撻자는 『廣韻』에 末·泰운과 𡗗운 이외의 又音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沫자의 성모가 𡗗운이어서, 𡗗운과 𡗗운의 대립이 유지될 수 없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6-1) 桓운[-wan]

- ① 官, 端, 鸞

## ② 亂, 寒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桓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桓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換운과 寒운으로 분류되는 亂자와 寒자가 冠자와 癩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冠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古玩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冠자는 『慧苑音義』에서 桓운이 아닌 換운으로 읽어야 된다. 寒자와 癩자는 『廣韻』에 寒운과 桓운 이외의 又音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癩자의 성모가 순음이어서, 원순과 평순의 대립이 유지될 수 없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29-3) 換운[-wan]

## ① 段, 玩, 換, 亂

## ② 滿, 管, 丸, 官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換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換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緩운과 桓운으로 분류되는 滿·管자와 丸·官자가 罍·斷자와 貫·鑽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罍·斷자와 貫·鑽은 『廣韻』에 又音으로 古滿切·都管切과 古丸切·借官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罍·斷자와 貫·鑽자는 『慧苑音義』에서 換운이 아닌 緩운과 桓운으로 읽어야 된다.

## (27-1) 刪운[-wan]

## ① 鰥, 閒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刪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山운으로 분류되는 鰥·閒자가 頑·環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sup>3)</sup> 鰥·閒자와 頑·環자는 『廣韻』에 刪

3) 『慧苑音義』에 수록된 글자들은 후대에 편찬된 자전류와는 달리 자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반절하자가 이체자로 쓰여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楷(12), 紫(58), 勵(66)자 등이고, 괴절자가 이체자로 쓰여 있는 경우는 예를

운과 山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刪운과 山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0-3) 諫운[-wan]

- ① 諫, 鴈
- ② 患
- ③ 串(古患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諫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諫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諫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諫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5-3) 願운[-ien, -wen]

- ① 晚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願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阮운으로 분류되는 晚자가 飯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飯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扶晚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飯자는 『慧苑音義』에서 願운이 아닌 阮운으로 읽어야 된다.

(1-1) 先운[-en, -wen]

- ① 賢
- ② 玄
- ③ 見, 燐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先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

들어 環(1), 藐(11), 裸(47), 槌(55) 등이다. 본고에서는 『慧苑音義』의 반절상자나 피절자가 이체자형일 경우 『高麗大藏經異體字典』 등을 참조하여 정자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절하자를 분석하였고 이를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慧苑音義』의 권수를 표기한다. 아래에서도 이를 따른다.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先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廣韻』에서 霰·眞운으로 분류되는 見·燐자가 填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填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堂練切·陟燐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填자는 『慧苑音義』에서 先운이 아닌 霰·眞운으로 읽어야 된다.

(27-2) 銑운[-en, -wen]

- ① 典
- ② 泫
- ③ 顯(呼典切)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銑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銑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銑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銑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2-3) 霰운[-en, -wen]<sup>4)</sup>

- ① 練
- ② 見(古電切), 遍(方見切)
- ③ 賢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霰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霰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霰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霰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先운으로 분류되는 賢자가 鉶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鉶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徒年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鉶자는 『慧苑音義』에서 霰운이 아닌 先운으로 읽어야 된다.

4) 『慧苑音義』에는 霰母자가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音된 경우가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鉶(26)자는 填同音이라고 직음되었는데, 鉶자와 填자의 『廣韻』 반절은 堂練切로서 모두 霰운이다.

(16-4) 屑운[-et, -wet]

- ① 結
- ② 穴
- ③ 雪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屑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屑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廣韻』에서 薛운으로 분류되는 雪자가 缺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缺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傾雪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缺자는 『慧苑音義』에서 屑운이 아닌 薛운으로 읽어야 된다.

(2-1) 仙운[-iæn, -iwæn, -jæn, -jwæn]

- ① 延[鮮(斯延反, 相延反, 新然反)], 連, 然
- ② 焉
- ③ 緣
- ④ 攀
- ⑤ 言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仙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③④는 『廣韻』에서 仙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⑤는 『廣韻』에서 元운으로 분류되는 言자가 焉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焉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謁言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焉자는 『慧苑音義』에서 仙운이 아닌 元운으로 읽어야 된다.

(28-2) 獮운[-iæn, -iwæn, -jæn, -jwæn]

- ① 演
- ② 緬
- ③ 辯
- ④ 奩(而兗切)

⑤ 偃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獮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③은 『廣韻』에서 獮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④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獮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獮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⑤는 『廣韻』에서 阮운으로 분류되는 偃자가 獻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獻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語偃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獻자는 『慧苑音義』에서 獮운이 아닌 阮운으로 읽어야 된다.

(17-4) 薛운[-iaet, -iwæt, -jæet, -jwæt]

① 列

② 哲(陟列切)

③ 銳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薛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薛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薛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薛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祭운으로 분류되는 銳자가 說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說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舒芮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說자는 『慧苑音義』에서 薛운이 아닌 祭운으로 읽어야 된다.

2.1.2 效攝

『慧苑音義』에서 嘯운, 巧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篠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3-1) 蕭운[-eu]

① 彫

② 烏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蕭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蕭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篠운으로 분류되는 鳥자가 繚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繚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盧鳥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繚자는 『慧苑音義』에서 蕭운이 아닌 篠운으로 읽어야 된다.

(4-1) 宵운[-iæu, -jæu]

- ① 遙
- ② 矯(學喬切)
- ③ 耀, 紹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宵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宵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宵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宵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笑운과 小운으로 분류되는 耀자와 紹자가 燒자와 橈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燒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朱照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燒자는 『慧苑音義』에서 宵운이 아닌 笑운으로 읽어야 된다. 紹자와 橈자는 『廣韻』에 小운과 宵·笑운 이외에 又音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橈자의 반절하자인 招자를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해 紹자로 잘못 표기했다고 분석되어야 한다.

(30-2) 小운[-iæu, -jæu]

- ① 沼, 小
- ② 夭
- ③ 繞[沼(之繞反)], 紹[市沼反]
- ④ 角, 略, 鳥, 了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小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小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小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

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小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④는 『廣韻』에서 覺운과 篠운으로 분류되는 角자와 鳥·了자가 藐,자와 嬈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藐자와 嬈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亡角切과 奴鳥切이 수록되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藐자와 嬈자는 『慧苑音義』에서 小운이 아닌 覺운과 篠운으로 읽어야 된다. 藥운으로 분류되는 略자 역시 藐자의 반절하자로 쓰였는데 藐자에는 藥운에 해당되는 又音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慧苑音義』 藐자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摸角反의 발음을 가진 藐자를 이용해 彌略反이라는 음을 가차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35-3) 笑운[-iæu, -jæu]

#### ① 曜(弋照切)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笑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笑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笑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5-1) 眷운[-au]

#### ① 包(布交切)

#### ② 教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眷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眷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眷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②는 『廣韻』에서 効운으로 분류되는 教자가 哮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哮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呼教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哮자는 『慧苑音義』에서 眷운이 아닌 効운으로 읽어야 된다.

### (36-3) 効운[-au]

#### ① 孝, 教, 兒

#### ② 覺[古兒反]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效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效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效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②는 『廣韻』에서 覺운으로 분류되는 覺자가 權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覺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古孝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覺자는 『慧苑音義』에서 覺운이 아닌 效운으로 분류해야 된다.

#### (6-1) 豪운[-au]

- ① 勞, 高, 刀
- ② 倒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豪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豪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 『廣韻』에서 豪운으로 분류되는 倒자가 操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操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七到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操자는 『慧苑音義』에서 豪운이 아닌 號운으로 읽어야 된다.

#### (32-2) 皓운[-au]<sup>5)</sup>

- ① 老, 早
- ② 擣(都皓切)
- ③ 到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皓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皓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皓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皓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號운으로 분류되는 到자가 木槩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木槩자는 『廣

5) 『慧苑音義』에는 皓운자가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音된 경우가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滲(78)자의 주석에 출현하는 澡자는 音부라고 적음되었는데, 澡·무자의 『廣韻』 반절은 子皓切로서 모두 皓운이다.

韻』에 又音으로 苦到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木稟자는 『慧苑音義』에서 皓운이 아닌 號운으로 읽어야 된다.

(37-3) 號운[-au]

- ① 到, 報
- ② 告(古到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號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號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號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號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3. 果攝

『慧苑音義』에서 過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罽운, 箇운의 반절하지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7-1) 歌운[-a]

- ① 何
- ② 訖(徒河切)
- ③ 我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歌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歌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歌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歌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罽운으로 분류되는 我자가 娑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娑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蘇可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娑자는 『慧苑音義』에서 歌운이 아닌 罽운으로 읽어야 된다.

(8-1) 戈운[-wa]

- ① 禾

② 哦, 歌, 俄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戈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戈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 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歌운으로 분류되는 哦·歌·俄자가 頗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哦·歌·俄자와 頗자는 『廣韻』에 歌운과 戈·馬·過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頗자의 성모가 순 음이어서, 원순과 평순의 대립이 유지될 수 없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4-2) 果운[-wa]

① 我, 寡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果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咍운과 馬운으로 분류되는 我자와 寡자가 叵자와 裸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我자와 叵자는 『廣韻』에 咍운과 果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叵자의 성모가 순 음이어서, 원순과 평순의 대립이 유지될 수 없는데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裸자는 『慧苑音義』에 力果反 이외에 又음으로 胡寡反이 수록되어 있지만 『廣韻』에는 郎果切만 수록되어 있어 두 운서간에 차이가 있다.

2.1.4. 假攝

『慧苑音義』에서 麻, 馬, 禡운의 반절하자는 모두 존재하지만 용자와 운류는 『廣韻』과 일치하지 않는다.

(9-1) 麻운[-a, -ia, -ua]

① 加

② 瓜

③ 遮, 野

④ 馱, 可, 我, 何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麻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③은 『廣韻』에서 麻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④는 『廣韻』에서 駑·歌운으로 분류되는 馱·可·我·我·何자가 迦·拏·叉·沙·奢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상기자들은 『廣韻』에 駑·歌운과 麻운 이외에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駑·歌운과 麻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5-2) 馬운[-a, -ia, -ua]

① 雅

② 我, 也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馬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馬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駑운으로 분류되는 我자가 哆자와 也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哆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丁可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哆자는 『慧苑音義』에서 馬운이 아닌 駑운으로 읽어야 된다. 我자와 也자는 『廣韻』에 駑운과 馬운 이외에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駑운과 馬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40-3) 禡운[-a, -ia, -ua]<sup>6)</sup>

① 夜

② 暇(胡駕切)

③ 加, 白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禡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禡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禡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의

6) 『慧苑音義』에는 禡운자가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음된 경우가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稼(42)자는 音稼로 직음되어 皮직음자와 直음자가 동일하다. 실제 『慧苑音義』에서는 皮직음자가 이체자로 쓰였기 때문에 직음자로 정자를 사용해 자형과 자음을 모두 밝혔다. 稼자의 『廣韻』 반절은 古訝切로서 禡운이다.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禡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麻운과 陌운으로 분류되는 加자와 白자가 咤자와 怕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咤자와 怕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陟加切과 普伯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咤자와 怕자는 『慧苑音義』에서 禡운이 아닌 麻운과 陌운으로 읽어야 된다.

2.1.5. 宕攝

『慧苑音義』에서 唐운, 蕩운, 宕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10-1) 陽운[-ian, -iwan]

- ① 良, 羊
- ② 兩, 妄, 誑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陽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陽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養운과 漾운으로 분류되는 兩자와 妄·誑자가 强자와 防·王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强자와 防·王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其兩切과 符況切·雨誑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强자와 防·王자는 『慧苑音義』에서 陽운이 아닌 養운과 漾운으로 읽어야 된다.

(36-2) 養운[-ian, -iwan]

- ① 兩
- ② 仰(魚兩切), 鞅[於兩反]
- ③ 亮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養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養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養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養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

서 漾운으로 분류되는 亮자가 仗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仗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直亮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仗자는 『慧苑音義』에서 養운이 아닌 漾운으로 읽어야 된다.

(41-3) 漾운[-iaŋ, -iwaŋ]

- ① 亮
- ② 誑(居況切)
- ③ 仗[直亮反, 除亮反]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漾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漾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漾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漾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養운으로 분류되는 仗자가 量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廣韻』에 仗자의 又音으로 直亮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仗자는 『慧苑音義』에서 養운이 아닌 漾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8-4) 藥운[-iak, -iwak]

- ① 灼
- ② 縛
- ③ 也, 我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藥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藥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廣韻』에서 馬운과 咍운으로 분류되는 也자와 我자가 若자와 縛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若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人者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若자는 『慧苑音義』에서 藥운이 아닌 馬운으로 읽어야 된다. 我자와 縛자는 『廣韻』에 咍운과 藥·過운 이외의 又音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縛자의 성모가 순음이어서, 원순과 평순의 대립이 유지될 수 없는데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19-4) 鐸운[-ak, -wak]

- ① 各
- ② 郭
- ③ 鶴(下各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鐸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②는 『廣韻』에서 鐸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③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鐸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鐸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6. 梗攝

『慧苑音義』에서 耕운, 梗운, 暎운, 陌운, 耿운, 勁운, 徑운, 淸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이 중 耕운과 淸운에는 반절 외에도 직음으로 주음된 경우가 각각 한 번 출현한다.<sup>7)</sup>

(12-1) 庚운[-aŋ, -iaŋ, -waŋ, -iwaŋ]

- ① 庚
- ② 兩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庚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庚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養운으로 분류되는 兩자가 亨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亨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許兩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亨자는 『慧苑音義』에서 庚운이 아닌 兩운으로 읽어야 된다.

(44-3) 諍운[-eŋ, -weŋ]

- ① 孟

7) 『慧苑音義』에는 耕운자와 淸운자에서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音된 경우가 각각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纓(1)자는 音纓으로 직음되었는데, 纓·纓자의 『廣韻』반절은 於盈切로서 모두 淸운이다.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靜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映운으로 분류되는 孟자가 硬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孟자와 硬자는 『廣韻』에 映운과 靜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映운과 靜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1-4) 麥운[-ɛk, -wɛk]

- ① 革
- ② 隔(古核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麥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麥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麥운의 반절하자로써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麥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0-2) 靜운[-iæŋ, -iwæŋ]

- ① 政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靜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勁운으로 분류되는 政자가 穽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穽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疾政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穽자는 『慧苑音義』에서 靜운이 아닌 勁운으로 읽어야 된다.

(22-4) 昔운[-iæk, -iwæk]

- ① 亦, 益
- ② 歷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昔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昔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錫운으로 분류되는 歷자가 磧자와 適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適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都歷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磻자와 適자는 『慧苑音義』에서 昔운이 아닌 錫운으로 읽어야 된다. 歷자와 磻자는 『廣韻』에 錫운과 昔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錫운과 昔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15-1) 靑운[-eŋ, -weŋ]

- ① 丁
- ② 零(郎丁切), 形(戶經切)
- ③ 甯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靑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靑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靑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靑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徑운으로 분류되는 甯자가 聽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聽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他定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聽자는 『慧苑音義』에서 靑운이 아닌 徑운으로 읽어야 된다.

(41-2) 迥운[-eŋ, -weŋ]

- ① 挺, 頂
- ② 炯[迥(胡炯反, 胡頂反)]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迥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迥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迥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迥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3-4) 錫운[-ek, -wek]

- ① 歷 擊
- ② 曆(郎擊切)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錫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錫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錫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錫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7. 曾攝

『慧苑音義』에서 拯운, 等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證운, 磴운, 德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16-1) 蒸운[-iəŋ, -iwəŋ]

① 陵

② 綾(力膺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蒸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蒸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蒸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蒸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4-4) 職운[-iək, -iwək]<sup>8)</sup>

① 力

② 域(雨逼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職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職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職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職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7-1) 登운[-əŋ, -wəŋ]

① 登

8) 『慧苑音義』에는 職운자가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음된 경우가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穡(41)자는 音色이라고 直음되었는데, 穡자와 色자의 『廣韻』 반절은 所力切로서 모두 職운이다.

② 楞(魯登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登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登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登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登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8. 流攝

『慧苑音義』에서 幽운, 黝운, 幼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有운, 侯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18-1) 尤운[-iəu]<sup>9)</sup>

① 尤, 由, 鳩, 周

② 鄒(側鳩切), 丘(去鳩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尤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尤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尤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尤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9-3) 宥운[-iəu]

① 救

② 究(居祐切)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宥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宥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宥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宥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9) 『慧苑音義』에는 尤운자가 반절로 주음된 것 외에도 直푸된 경우가 한 번 출현한다. 예를 들어 鏊(14)자는 桴추라고 직음되었는데, 鏊·桴자의 『廣韻』 반절은 莫浮切로서 모두 尤운자이다.

(45-2) 厚운[-əu]

- ① 口, 苟
- ② 走(子苟切)
- ③ 甫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厚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厚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厚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厚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麤운으로 분류되는 甫자가 脄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脄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芳武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脄자는 『慧苑音義』에서 厚운이 아닌 麤운으로 읽어야 된다.

(50-3) 候운[-əu]

- ① 豆
- ② 搆(古候切), 構(古候切)
- ③ 沃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候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候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候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들이 候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은 『廣韻』에서 沃운으로 분류되는 沃자가 漚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漚자는 『廣韻』에 又음으로 內沃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漚자는 『慧苑音義』에서 候운이 아닌 沃운으로 읽어야 된다.

2.1.9. 深攝

『慧苑音義』에 侵운, 沁운, 緝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47-2) 寢운[-iem, -jem]

① 錦

② 禁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寢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寢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沁운으로 분류되는 禁자가 飲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飲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於禁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飲자는 『慧苑音義』에서는 寢운이 아닌 沁운으로 읽어야 된다.

2.1.10. 咸攝

『慧苑音義』에 昏운, 琰운, 木忝운, 咸운, 陷운, 銜운, 鑑운, 狎운, 嚴운, 釅운, 業운, 凡운, 范운, 梵운, 泛운으로 분류되는 반절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覃운, 勘운, 談운, 敢운, 闞운, 盍운, 帖운, 賺운, 洽운, 檻운의 반절하자는 용자와 운류가 모두 『廣韻』과 일치한다.

(48-2) 感운[-ɔm]

① 感

② 攬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感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感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敢운으로 분류되는 攬자가 坎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攬자와 坎자는 『廣韻』에 敢운과 感운 이외의 又音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敢운과 感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4-1) 鹽운[-iæm, -jæm]

① 鹽, 廉, 占

② 嚴

이상은 『廣韻』에서 피절자가 鹽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

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鹽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廣韻』에서 嚴운으로 분류되는 嚴자가 炎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嚴자와 炎자는 『廣韻』에 嚴운과 鹽운 이외의 又音が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嚴운과 鹽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55-3) 豔운[-iæm, -jæm]

① 焰(以瞻切)

② 鹽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豔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豔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豔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②는 『廣韻』에서 鹽운으로 분류되는 鹽자가 戩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戩자는 『廣韻』에 又音으로 於廉切이 수록되어 있어 『慧苑音義』의 반절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戩자는 『慧苑音義』에서는 豔운이 아닌 鹽운으로 읽어야 된다.

(29-4) 葉운[-iæp, -jæp]

① 葉, 輒

② 獵(良涉切)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葉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葉운으로 분류된 반절하자들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②는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葉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葉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5-1) 添운[-em]

① 嫌(戶兼切)

② 鹽

이상은 『廣韻』에서 괴절자가 添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添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添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②는 『廣韻』에서 鹽운으로 분류되는 鹽자가 恬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鹽자와 恬자는 『廣韻』에 鹽운과 添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鹽운과 添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51-2) 添운[-em]

① 淦(乃玷反)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添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慧苑音義』에서만 사용된 添운의 반절하자로서 괄호 안의 『廣韻』반절은 이 글자가 添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54-2) 儼운[-iem]

① 儉

이상은 『廣韻』에서 僻절자가 儼운인 글자들에 대해 사용된 『慧苑音義』의 반절하자들을 귀납한 것이다. ①은 『廣韻』에서 琰운으로 분류되는 儉자가 儼자의 반절하자로 쓰인 경우이다. 儉자와 儼자는 『廣韻』에 琰운과 儼운 이외의 又음이 없기 때문에 이는 『慧苑音義』에서 운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琰운과 儼운이 혼절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상 『廣韻』과의 비교를 통해 山攝에서 咸攝까지의 해당되는 『慧苑音義』의 운목과 운류를 성공적으로 분류하였다.<sup>10)</sup>

2.2. 『慧苑音義』 반절하자 특징

2.1절의 분류에서 『慧苑音義』 반절하자는 『廣韻』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용자의 차이, 둘째, 僻절자의 又음을 통한 주음, 셋째, 개합구 혼란, 넷째 혼절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앞에 두 가지는 저본과 의미

10) 『慧苑音義』와 『廣韻』간의 운류와 운목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장재웅(2004)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 음운변화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뒤의 두 가지는 그렇지 않다. 2.2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慧苑音義』 반절하자에 반영된 음운 특징을 설명해보기로 한다.

### 2.2.1 순음 성모의 개합구 문제

이것에 해당되는 예자는 총 5자이다 이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1)</sup>

| 번호 | 예자 | 『慧苑音義』 반절하자 | 『廣韻』 반절하자 | 운목(피절자/반절하자) |
|----|----|-------------|-----------|--------------|
| 1  | 撻  | 沫           | 達         | 曷/末          |
| 2  | 癩  | 寒           | 官         | 桓/寒          |
| 3  | 頗  | 歌           | 禾         | 戈/歌          |
| 4  | 叵  | 我           | 火         | 果/哿          |
| 5  | 縛  | 我           | 過         | 過/哿          |

앞의 도표에서 상기 예자들은 피절자와 반절하자의 개합구가 일치하지 않는 것 외에 한 가지 공통점을 더 가지는데 그것은 피절자나 반절하자의 성모가 순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문제의 해답이다. 사실 이는 『慧苑音義』만의 문제는 아니다. 『廣韻』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칼그렌(Karlgren 1940:42-3)은 순음의 발음시 입술을 내밀어 발음하므로 자연적으로 합구의 색채를 띠게 되어 뒤에 나오는 운모에 합구 색채를 가미해주게 되는 것이 순음의 개합의 혼란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쉬에(Hsueh, F. S. 1975:39)는 순음 성모 뒤에 일률적으로 합구 개음을 세움으로써 이러한 순음 성모의 개합구 문제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는 음운변화로 해석될 수 없다.

### 2.2.2 반절하자의 혼절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예자는 총 14자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sup>13)</sup>

11) 5번은 又音이다.

12) 예를 들어 建(居万切 願운)에서 반절하자 万은 순음으로 願운 합구자인데 피절자 建은 願운 개구자이다.

13) 3, 4, 5, 6의 성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본고의 분석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 번호 | 예자 | 『慧苑音義』 반절하자 | 『廣韻』 반절하자 | 운목(『慧苑音義』/『廣韻』) |
|----|----|-------------|-----------|-----------------|
| 1  | 頑  | 鰈           | 還         | 山/刪             |
| 2  | 環  | 間           | 關         | 山/刪             |
| 3  | 迦  | 馱           | 牙         | 哿/麻             |
| 4  | 拏  | 可           | 加         | 哿/麻             |
| 5  | 叉  | 我           | 牙         | 哿/麻             |
| 6  | 沙  | 我           | 加         | 哿/麻             |
| 7  | 奢  | 何           | 車         | 歌/麻             |
| 8  | 也  | 我           | 者         | 哿/馬             |
| 9  | 硬  | 孟           | 諍         | 映/諍             |
| 10 | 蹟  | 歷           | 迹         | 錫/昔             |
| 11 | 坎  | 攬           | 感         | 敢/感             |
| 12 | 炎  | 嚴           | 廉         | 嚴/鹽             |
| 13 | 恬  | 鹽           | 兼         | 鹽/添             |
| 14 | 儼  | 儉           | 掩         | 琰/儼             |

상기 도표는 반절하자의 혼절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2, 9, 11은 重韻의 병합현상과 관련된다. 薛鳳生 (1999:47)은 重韻을 『切韻』과 等韻사이에서 발생한 음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切韻』만으로 볼 때에는 重韻은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른 별개의 운일 뿐이었지만 이후 等韻시대에는 두 운이 유사하게 변화하여 같은 攝 같은 等に 속하게 된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1, 2, 9, 11의 반절하자가 혼절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sup>15)</sup> 3, 4, 5, 6, 7, 8은 王力(1985:262)의 설에 의하면 이것은 麻운이 아직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는 상고 歌部에서 麻운이 독립된 시점을 隋에서 中唐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慧苑音義』보다 40여년 앞서 편서된 『玄應音義』(644)에는 歌·麻운이 혼절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慧苑音義』에서 歌·麻운(平聲으로 上·去聲을 대신한다)의 혼절상황은 분운과정의 잔재일

14) 이 중 刪운과 山운이 혼절된 예는 음운 변화가 아닌 기저음운상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邵榮芬 1982:9-10).

15) 『慧苑音義』에서 重韻에 해당되는 기타 운의 반절하자의 상황은 또 하나의 증거이다. 예를 들어 怪운과 卦운이 혼절된 예로 械(侯界反)자가 존재하고, 怪운과 卦운이 혼절된 예로 邁(莫界反)자가 존재한다.

수 없다. 필자의 설은 歌·麻운의 혼절상황은 한어 음소체계에 없는 산스크리트음을 역음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일 뿐 당시에는 이미 완전히 분운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두 가지 증거가 있다. 拏(76), 𪔐(76), 沙(76), 奢(76), 也(76)자는 각각 산스크리트음 *ṇa*, *kṣa*, *ṣa*, *śa*, *ya*를 음역한 것이다.<sup>16)</sup> 그리고 만약 분운되지 않았다면 『慧苑音義』에서 迦자와 奢자에 ‘歌자주’와 ‘借音’이라는 설명을 특별히 부가할 필요는 없다. 10, 13은 3등자와 4등자의 혼절현상이므로 이것은 4등 개음이 발생됨으로써 3등자의 반절하자를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黃涇伯(1930)은 『慧琳音義』(807) 반절체계에서 4등자의 반절상자가 1등자에서 重紐4등자로 교체된 것을 근거로 4등 개음의 발생을 주장하였다. 이는 唐代에 이미 4등자에 [j] 개음이 생겨서 重紐4등자와 같은 음이 되기 시작하여 1등자와는 음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논리대로라면 반절하자의 교체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풀리블랭크(Pulleyblank 1984)처럼 淸운과 鹽운을 重紐운으로 인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慧苑音義』에는 黃涇伯의 증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1등자의 반절상자를 4등자로(添韻: 玷[多忝切(『廣韻』)] > 丁滄反 상성) 등, 4등자의 반절상자를 1등자로(哆[丁可切(『廣韻』)] > 當我反]) 교체한 예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근거로 10, 13을 4등 개음 발생으로 야기된 혼절로 인정한다.<sup>17)</sup> 이제 12, 14가 남았다. 필자는 반절하자의 혼절문제를 다루면서 운모 음가의 유사성이라는 해석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후의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타 가능성을 통해서도 운모 음가의 유사성보다 더 나은 해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2, 14를 그렇게 처리하기로 한다. 12, 14의 피절자와 반절하자의 운모는 각각 *-iæm*, *-iem*과 *-iem*, *-iæm*으로서 모두 중앙모음에서 전설모음과 저모음쪽으로 치우쳐 있다.

16) 중고음에서 이를 만족시킬 음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麻운의 2등자는 산스크리트어의 뒤 음절이 권설음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다(Pulleyblank 1984:193)

17) 그러나 이것이 『慧苑音義』 편찬시기에 4등 개음은 한어 운모체계에서 독립된 음소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등 개음 발생시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장재웅(2005)를 참조할 수 있다.

### 3. 맺음말

본고는 『慧苑音義』 음운체계 분석의 기초 자료로의 활용과 『廣韻』 이외의 반절 자료의 발굴 및 제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앞에서의 『慧苑音義』 반절 하자에 대한 논의결과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廣韻』과의 비교를 통해 『慧苑音義』 반절하자를 분류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분석해내었다. 첫째, 용자의 차이(부운: 嬾, 奘/翰운: 翰, 幹), 둘째, 피절자의 又음을 통한 주음([難[那干切(『廣韻』寒운), 難[奴案切(『廣韻』翰운): 那幹反 翰운]) 셋째, 순음 성모의 개합구 혼란현상[撻(曷운 개구): 沫(末운 합구)], 넷째 반절하자 혼절 현상이다. 이 중 음운변화와 관련된 것은 반절하자 혼절 현상으로서 이를 통해 重韻의 병합현상(山刪, 映諍, 敢感), 4등 개음의 발생(磧[七迹切(『廣韻』錫운): 遷歷反 昔운])이 『慧苑音義』에서도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시작되었음을 밝혔고, 麻운과 歌운의 분화[奢(式車切 麻운): 尸何反 歌운]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밝혀내었다.

#### ❖ 참고 문헌

- 경인문화사, 『불교용어사전』, 서울: 경인문화사, 1998.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東國譯經院, 『華嚴經』80, 『高麗大藏經』, 서울: 東國譯經院, 1976.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 學生書局, 1968[제10판].  
 徐時儀, 『慧琳音義研究』,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薛鳳生, 『漢語音韻史十講』,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1999.  
 邵榮芬, 『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이규갑, 『高麗大藏經異體字典』,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00.

- 李榮,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56[1972].
- 장재웅, 『慧苑音義 운모체계 연구』, 『중국어학연구』 29, 2004.
- 장재웅, 『『慧苑音義』 반절하자 분류 및 특징 연구( I )』, 『人文科學研究』 13.2, 2005.
- 周法高, 『玄應反切考』, 『中國語言學論文集』, 臺北: 聯經出版社 153-238, 1948 [1981].
- 周法高, 『玄應反切字表』, 臺北: 崇基書院, 1968.
- 陳彭年, 『新校互註宋本廣韻』(1008), 余迺永 校注(2000),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최영애, 『中國語音韻學』, 서울: 통나무출판사. 2000.
- 黃淬伯,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臺北: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 1931
- Hsueh, F. S., *Phonology of Old Mandarin*, The Hague, 1975.
- Karlgren, Bernhard,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Uppsala, K. W. Appelberg, Leiden, E. J. Brill, 趙元任·羅常培·李方桂 合譯, 『中國音韻學研究』, 上海: 商務印書館, 1915~1926[1940].
- Pulleyblank, Edwin G,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4.

❖ ABSTRACT

A Study of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 of  
FanqieXiazi(反切下字) in the *HuiyuanYinyi*(慧苑音義) by  
comparing with *Guangyun*(廣韻)

Chang, Jae-Woong

This study has been devo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honological system of *HuiyuanYinyi*(慧苑音義). To analyze the sound system of *HuiyuanYinyi*, this study first of all was used with the turn and cuts(反切) that there were existed in the *HuiyuanYinyi*. By comparing with *Guangyun*(廣韻), we determined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nals in the *HuiyuanYinyi*. Above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in three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finals; 1. the mixture of round vowel and unround vowel under labial initials, 2. the mixture of Shan(山)/Shan(刪), Ying(映)Zheng(諍) and Gan(敢)/Gan(感) finals by the similarity of the final, 3. the mixture by the birth of medial of division 4, 4. the division of Ma(麻운) and Ge(歌운) finals.

---

Key Words

*HuiyuanYinyi*(慧苑音義), finals of the turn and cuts(反切下字), *Guangyun*(廣韻), she(攝), of group of finals(韻類), phonological development

논문접수일: 2008. 4. 28.

심사완료일: 2008. 5. 26.

게재확정일: 2008. 6. 13.